국어 수업 도입부의 소통 전략 연구

김승현* · 박재현**

< 次 例 >

Ⅰ. 서론
Ⅱ. 세부 단계의 맥(脈) 연결하기
Ⅲ. 수업의 흐름 공유하기
Ⅳ. 해석적 발화 사용하기
Ⅴ. 결론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교실에서 일어나는 수업 대화는 '대화'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와 학생 간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연속이다. 특히 학생의 참여와 학생 주도의 수업이 강조되는 현대의 교육과정 속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수업 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교사 화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화법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의 내용을 '교사 화법'에 적용시켜서 제시하는 수준의 논의와 교사 화법을

* 서울 보인고등학교 교사
**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교신 저자)

유형화하는 다양한 논의는 있었지만, '교사 화법' 자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더군다나 '교사 화법'은 수업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수업 담화'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사 화법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실제적인 수업 담화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면 수업 상황에서 나타나는 교사 화법의 양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서 교사 화법의 기능과 전략을 제대로 찾아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실제 수업 담화에 나타난 교사들의 발화 양상을 분석하여 교사 발화의 특성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수업 담화는 크게 도입, 전개, 정리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 '도입부 발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수업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도입 발화는 학생을 수업으로 이끌어 오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의 시작이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첫 부분이다.[1] 즉, 도입 발화가 잘 이루어져야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교사는 수업에서 학습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입 발화에서는 학생에게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수업의 밑그림을 그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수업을 계획할 때부터 도입부에 대한 소통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1) 도입 단계의 주요 활동으로 변영계 · 김영환 · 손 미(2007: 77~78)에서는 '학습자의 동기 유발, 학습 목표의 제시, 선수학습과 관련짓기'를 들고 있으며, 정석기(2008: 195)에서는 '학습 환경 조성, 선수학습 관련짓기(또는 전시 학습 상기), 수업 주제 확인, 학습 목표 인지, 동기 유발'을 들고 있다.

2. 선행 연구 검토

교수 화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교수 화법의 개념 정의나 유형 분류 등과 같은 교수 화법의 이론적 논의에 머물러 왔다. 따라서 교실에서 일어나는 실제 수업 담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교사, 학생, 혹은 양자 간의 발화 양상이나 발화의 의미, 기능 등 실질적인 교수 화법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수진(2003)에서는 교실이나 수업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수업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나 그 결과의 평가에 집중되고 정작 수업 시간 중에 지식이 어떻게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의미가 형성되고 전달되는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장애 요소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실제 수업 대화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민현식(2004)에서도 교수법과 교수 언어에 대한 관심과 반성이 나타나는 추세 속에서 교수 화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수 화법의 단계를 분석하고 각 단계별로 주의해야할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수 화법 연구를 제안하였다. 교수 화법의 언어를 크게 '준비언어, 진행언어, 내용언어'로 구분하고 수업 전 언어활동인 수업 준비, 모의 수업, 예고, 상담 등을 '준비언어'로, 수업 진행에 관련한 인사말, 출석 확인 등의 도입언어와 교사와 학생 간 상호 약속이나, 각종 지시와 같은 계약 언어를 '진행언어'로, 교사의 수업 목표 제시와 수업 내용, 수업 마무리에 필요한 목표언어, 동기유발언어, 해설언어, 문답언어, 마무리언어를 '내용언어'로 분류하였다.

실제 수업 담화를 사용하여 교사의 수업 발화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로는 길양숙(1999)과 박태호・이수진(2003), 박태호(2009)가 있다. 길양숙(1999)에서는 중등학교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수 행동 및 수업 방법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53명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교사의 수업을 관찰하여 분

석하였다. 수업의 단계를 도입, 전개, 정리의 세 단계로 구분해서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교수행동 및 특성을 제시하였는데, 도입 단계에서는 ① 출석 확인, ② 숙제 확인, ③ 본시 주제를 말하거나 판서, ④ 목표 설명(판서와 낭독), ⑤ 전시 학습 평가(전시 내용 설명), ⑥ 선행조직자 설명과 같은 교수 행동이 나타났다.

박태호·이수진(2003)에서는 수업 대화를 싱클레어와 쿨사드가 제안한 '시작대화-반응대화-피드백대화'로 구분하고 각각의 하위 항목들을 분석해 실제 수업 담화 분석에 적용하였다. 시작대화는 전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보 제공과 중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고 활동 유도하기, 주의 집중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보 제공하기의 하위 항목으로 설명하기, 시범보이기, 안내하기, 지시하기를, 사고활동 유도하기의 하위 항목으로 배경지식 활성화시키기, 탐구심 유발하기, 도전하기, 추론하기, 조직하기를, 주의 집중시키기의 하위 항목으로 주의 경고하기, 훈계 권고하기, 흥미 환기하기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박태호(2009)에서는 교수화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을 분석하고 있는데, 교수 화법 요소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교사의 발화를 분석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좋은 수업의 원리'를 정리하였는데, 이 연구와 관련해서는 수업 표지어로 구체적인 학습 활동을 안내하는 것과 도식 조직자(graphic organizer)를 사용하여 학습의 흐름을 공유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수업 발화 자체는 아니지만 국어 수업의 도입부에 대한 연구는 임칠성(2006)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공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국어 수업의 도입부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특히 도입부가 부차적인 단계가 아니라 수업의 본질적 단계임을 부각하기 위해 '도입 수업'이라고 명명하고, 이 도입 수업의 각 단계가 효과적으로 작용되기 위한 여러 조

건과 구성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국어 교사의 수업에 나타난 도입부 발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이주령(2005)이 있는데, 수업의 일반적 진행 양상, 언어 기능 및 문장의 구조, 대화분석론적 양상 등을 분석하여 도입부 수업 대화의 모습을 조망·해석하였다. 수업의 일반적 진행 양상을 재현할 수 있는 분석 요소로는 인사 주고받기, 선행 학습 상기, 수업 준비 점검, 동기 유발, 학습 목표 제시가 있다. 언어 기능 및 문장의 구조 분석에서는 정보 전달적 기능, 표현 및 친교적 기능, 명령적 기능 등 언어의 기능적 양상과 종결어미, 문장 성분의 생략, 화제 전환 표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대화분석론적 분석에서는 화행과 이동, 발화연속체,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분석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수업 대화를 사례로 제시하고 각 양상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실제 수업 담화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수업 소통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수업 담화의 국면을 직관적으로 유형화하는 데 그쳤다면, 이 연구에서는 실제 수업 담화를 검토하여 그러한 개별 국면들이 어떻게 전개되며 상호작용하는지, 그러한 상호작용이나 표현 방식 등이 수업 환경에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지 의사소통의 전략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3. 연구 방법

국어 수업 도입부의 소통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17편의 우수 수업 영상을 활용하였다. 최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교육 기관을 비롯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우수 수업 사례를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 영상은 수업 경진 대회, 연구 수업,

교사의 개인 UCC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는 수업의 실태를 조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능숙한 경력 교사의 수업에서 도입부의 소통 전략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우수 수업 영상'으로 제시된 것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개인적 차원의 UCC 영상은 제외하고,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에듀넷,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수·학습 지원 센터에 올라와 있는 17편의 우수 수업 영상을 분석하였다.

2010년 1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 동안 자료를 수집하여 전사한 후, 수업 영상과 전사본을 동시에 보면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도입부의 소통 전략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초등학교 수업과 중등학교 수업은 같은 국어 수업이라도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중등학교 국어 수업 자료로 범위를 국한하여 다루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을 골고루 포함하였으며, 1차시 분량의 수업 17편의 전체 영상의 시간 합계는 788분(13시간 8분)이었다. 분석 대상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우수 수업 영상 목록

자료 번호	영역	학년	단원명	시간 (분)	자료 출처
1	말하기	중2	1.(1) 토론한 내용으로 말하기	52	대구교육인터넷 방송
2	문법	중2	2.(2) 국어의 관용어	47	교육과학기술부
3	쓰기	중1	5.(2) 내용 선정 연습	38	경북교육포털
4	문학	고1	6.(4) 유리창	52	
5	문학	중1	6.(1) 흰 종이 수염	54	에듀넷
6	문학	고1	6.(4) 유리창	50	
7	문학	중3	3.(2)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48	전북교수학습지원센터

8	매체	고1	2.(1) 다매체 시대의 언어활동	53	광주교수학습지원센터
9	읽기	중3	4.(1) 지사의 길, 시인의 길	45	제주교육인터넷방송
10	듣기/말하기	중3	4.(1) 언어, 반언어,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62	대전교육포털
11	문학	중1	2.(4) 옛이야기	48	
12	쓰기	중3	3.(2) 글쓰기 연습	45	
13	말하기	중2	5.(2) 발화의 기능을 고려하여 말하기	33	경기교육인터넷방송
14	문학	고2	호질	49	
15	말하기	중2	1.(1)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말하기	21	평가원교수학습센터
16	문학	중1	2.(4) 옛이야기	44	경기교육인터넷방송
17	문학	고2	추억에서	47	
합계				788	

Ⅱ. 세부 단계의 맥(脈) 연결하기

우수 수업 영상의 도입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입부의 세부 단계가 물 흐르듯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개된다는 것이다. 능숙하지 못한 예비 교사의 수업을 관찰해 보면, 도입부에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대략은 알고 있다. 즉, 선수 학습 상기, 동기 유발, 학습 목표 제시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세부 단계가 유기적인 흐름을 갖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나열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동기 유발은 학생을 집중시키거나 흥미를 끌기 위해 재미있는 영상을 한 편 보여주고, 이와는 상관없는 학습 목표를 기계적으로 제시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학습 활동의 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바로 본시 학습으로 들

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양상의 원인은 교원 양성 기관에서 이론적으로는 수업 설계에 필요한 세부 단계들은 학습하였으나, 이러한 세부 단계를 실제 수업에서 본시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학습자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숙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수업 도입부가 수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학습자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전 지식을 활성화하여 본시 학습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갖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수업이 아니라 수업 전의 출석 점검이나 인사와 같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 도입부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다.

<표 2>는 도입부의 양상을 분석한 것인데, 이번에 분석한 우수 수업 영상에 나타난 교사들의 경우 선수 학습 상기, 동기 유발, 학습 목표 제시, 본시 학습 안내 발화를 적절하게 구사하며 수업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 특히 능숙한 교사는 수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각각의 세부 단계가 기계적으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관성(선수 학습 상기→동기 유발→학습 목표 제시→본시 학습 안내)을 가지고 맥(脈)을 공유하면서 연결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표 2〉 도입부의 세부 단계 양상

단계 / 자료	인사 하기	주의 환기	수업 준비 점검	선수 학습 상기	동기 유발	학습 목표 제시	본시 학습 안내
1	○		○	○	○	○	○
2	○	○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7				○	○	○	
8	○	○		○	○	○	
9	○			○	○	○	○
10	○			○	○	○	
11	○	○		○	○	○	
12	○			○		○	
13	○	○		○	○	○	○
14	○			○	○	○	○
15	○	○		○		○	
16				○		○	○
17	○			○	○	○	○

이러한 도입부의 양상에서, 선수 학습에서 학습 목표를 도출하여 연결한 사례, 동기 유발에 학습 내용에 대한 단서를 담아 자연스럽게 학습 목표로 연결한 사례,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도(地圖)로 본시 학습을 상세히 안내하여 연결한 사례를 중심으로 세부 전략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선수 학습에서 학습 목표 도출하기

[자료 15]는 선수 학습 내용을 본시 학습과 연결하는 교사의 발화이다.

T[2]: 네, 수고 했어요. 정말 전문가다운 주연이의 발표였습니다. ㉠우리 잠시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복습해 보겠습니다. 말하기에서 보조 자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배웠었는데 기억나요? 말하기에서 보조 자료의 역할이 무엇일까? 자 손들고

2) T는 교사, S는 학생 1명, SS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발화한 것이다.

애기 해 봅시다. 거기, 경철이.

S: ㉡구체적인 인상을 심어주어 듣는 이가 좀 더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T: "구체적인 인상을 심어주어서 듣는 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했네요. 또 다른 사람?

S: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제시 할 수 있습니다.

T: 아, 뭐라고?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제시 할 수 있어서 보조 자료가 좋다."라고 얘기 했어요. ㉣자 그러면 전 시간에 배웠던 것, 말하기에서 보조 자료의 역할, 기억해 두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우리 뭐 하기로 했었어요?

SS: 발표

T: 어떤 발표?

SS : 뉴스

T: 응, ㉤뉴스 진행 형식으로 말하기 하기로 했었죠. 그럼 학습 목표 여러분이 추출해낼 수 있겠네요. 학습 목표.

SS :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말하기

[자료 15]

교사는 ㉠으로 선행 학습한 '보조 자료의 역할'을 생각해보게 하고, ㉡과 ㉢의 학생 답변으로 이를 상기하게 한 후, ㉣로 '보조 자료 역할(전시)'과 '보조 자료 활용(본시)'의 학습을 연계하고 있다. ㉤으로 학생들이 ㉥의 학습 목표를 도출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더욱 인상적인 것은 전시 학습과 본시 학습의 연결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질문과 응답을 통해 학습자를 상호작용의 장으로 끌어 들여 스스로 학습 목표를 도출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소통 전략은 학습자로 하여금 전시 학습과 본시 학습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전시 학습에서 배우 내용을 본시 학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3]

2. 동기 유발과 학습 목표 연결하기

도입부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본시에 학습하게 될 내용을 알려주어, 학생들이 수업의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 목표의 제시는 도입부 발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단계이다.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17개의 자료 모두에서 빠짐없이 학습 목표의 제시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목표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4]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도록 맥락화[5]하여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때 효과적인 것이 동기 유발과 학습 목표를 핵심적인 맥을 이어 연결하는 전략이다.

동기 유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발화의 양상은 교사가 준비한 동영상을 제시하고, 동영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본시 수업 내용과 관

---

3) '선수 학습 상기'란 단순히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회상하는 기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습자의 출발점을 진단하는 중요한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진단 기능보다는 소통 전략의 일환으로서 선수 학습을 본시 학습에 연결하는 전략에만 초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4) 정석기(2008: 203)에서는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① 교사가 학습 목표를 읽는 것, ② 전체 학생에게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는 것, ③ 한 학생이 읽고 난 다음 전체 학생이 따라 읽는 것 등과 같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읽히는 방법을 들고 있다.

5) 민병곤(2008: 376)에서는 학습 목표를 제시할 때 맥락화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교수·학습 목표는 대개 교수자의 관점에서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를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맥락화가 필요하다. 맥락화는 기존의 학습 내용이나 생활 경험과 학습 목표를 관련짓는 과정이다. 맥락화가 잘 이루어질 경우 학습자는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명확한 목표 의식을 갖지 못하고 수동적인 태도로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련을 짓는 형태이다. 교사가 학습 목표와 관련이 있는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감상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냄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습 목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동기 유발을 위한 자료를 제시할 때에는 [자료 1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교사가 동영상이 단순한 흥미 유발의 자료가 아니라, 수업 내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발화도 필요하다.

T: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 '추억에서'를 수업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 전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수업 내용에 대한 힌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

[자료 17]에서는 학생들에게 제시된 자료와 수업 내용과의 관련성을 환기시켜 주는 ㉠과 같은 발화가 제시되어 있다. 교사가 이러한 발화를 사용함으로써 단순한 흥미 유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뒤에 이어질 수업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자료 13]과 같이 학습 내용과 관련이 있는 동기 유발 활동을 제시한 후에 자연스럽게 학습 목표를 이끌어 내는 발화의 양상도 살펴 볼 수 있다.

<교사가 준비한 동영상 감상>

T: 자, 마지막 장면 어땠어요, 어린 아이가? 책을 폈지요?

SS: 네.

T: ㉠같은 시험 이틀 전이라는 상황에서 말하기에 따라서 한 번은 엄마 바보야, 한 번은 책을 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소단원 제목 한 번 읽어볼까요? 자, 칠판, 시작.

SS: 발화의 기능을 고려하여 말하기.

T: 항상 공부를 할 땐 선생님이 무슨 목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SS: 학습 목표.

T: ㉡그렇죠. 학습 목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무엇과 무엇을 고려해 말할 수 있다? 지금 두 가지 경우를 봤습니다. 자, 어떤 거에 따라서 말하기가 달라질까요? 제일 중요한 거? 누가.

S: 듣는 사람.

T: 듣는 사람. 그렇죠. 일단, 듣는 이를 고려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또? 지금 우리는 학교 교실이니까, 수업중이니까, 또는 운동장에서 얘기할 때랑 도서실에서 얘기할 땐 다 다르겠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배울 학습 목표 한 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SS: 다양한 상황과 듣는 이를 고려해 말할 수 있다.

[자료 13]

[자료 13]에서 교사는 학습 내용과 관련이 있는 동기 유발 활동을 제시하고, ㉠과 같이 활동의 결과와 의미를 요약하면서 ㉡과 ㉢처럼 자연스럽게 학습 목표를 이끌어내고 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수업 대화가 교사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기 유발을 통해 학습 목표를 이끌어내는 형태의 발화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6]

6) 임칠성(2006: 178-179)에서는 수업 주체로서의 학습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기 유발을 통해 학습자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학습 목표를 결정하고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즉, 동기 유발이 단순히 흥미 유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능동적 태도 형성과 적극적 참여의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3. 학습 목표를 본시 학습 안내와 연결하기

명시적으로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도(地圖)를 학습자에게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 지점과 그곳을 향한 경로를 알고 수업을 하는 것과 목표 지점은 알지만 경로는 모르고 교사의 뒤만 따라가는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다. 17개 수업 영상 모두에서 학습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자료 2]는 학습 목표와 관련한 본시 학습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의 발화이다.

T : 자, 그래서 오늘은 저 '배 아프다.'처럼 낱말 뜻 그대로 해석하면 뭔가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말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습할 내용의 학습 목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글로 쓸 때하고 소리 내어서 말할 때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게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 내어서 특히 크게 소리 내어서 말할 때 우리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학습 목표를 크게 읽으면서 ㉠오늘 수업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 목표 크게 읽습니다. 일.

SS : ㉡관용어의 개념과 특징을 말할 수 있다.

T : 이.

SS : ㉢관용어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T :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우선 관용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관용어의 문맥적 의미를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관용어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인가 관용어의 문맥적 의미를 통해서 특징을 한 번 추론해 보고 그 다음에 관용어는 어떻게 변화되어서 사용되는가 알아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 언어를 관용어로 변형시키는 활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

교사는 '㉠~㉢'을 통해 학습 목표를 언급한 후, 이와 연결하여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처럼 안내하여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듯 우수 수업 영상의 경우 공통적으로 사용된 소통 전략은 세부 단계의 유기적 연계이다. 도입부의 첫 단계부터 마지막 세부 단계까지 개별 요소가 해당 차시 수업의 핵심적인 맥을 공유하면서 그 흐름이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수업 소통의 안정성과 자연스러움을 더하며, 학습자들이 학습 활동을 통해 수행해야 할 과제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Ⅲ. 수업의 흐름 공유하기

1. 체계적으로 수업 단계 설명하기

본시 학습 안내는 수업의 도입부 중 후반부에 나타나는 발화의 양상으로, 말 그대로 본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안내해 주는 발화이다.[7] 학생들이 수업의 진행 양상을 알고 있다면 수업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무엇을 학습해야 할지가 분명해 진다. 따라서 본시 학습 안내는 교사

7) 임칠성(2006: 179)에서도 일반적인 도입부의 구성 요소인 ①수업 분위기 조성, ②동기 유발, ③학습 목표 제시, ④선수 능력 점검 외에 '대단원과 소단원 수업 흐름 파악'을 도입 부분에 추가하여야 함을 논의하고 있다.

가 학생에게 수업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주는 발화인 것이다.

능숙한 교사의 발화를 분석해 본 결과, 10명의 교사들이 이 단계의 발화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교사들이나 예비교사들의 발화를 분석해 보면 '본시 학습 안내' 단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능숙한 교사들은 수업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안내하면서 학생과 함께 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시 학습 안내는 대체로 학습 목표 제시가 끝나고 본시 수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사의 설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 1]은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 교사의 발화이다.

> T : 예,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수업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먼저, 여러분들이 해온 과제를 제출합니다. 두 번째는, 모둠 역할별 말하기를 하고 그 결과로 대표를 뽑아 모의재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배심원이 되어서 평가를 하면서 봅니다. 그 결과를 모아 판결을 하고 활동을 가장 잘한 사람을 뽑습니다. 모의재판을 지켜본 소감, 해본 소감을 발표한 후 자기 활동을 평가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수업 목표 네 가지가 모두 달성이 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수준별 형성 평가를 하고 다음 시간엔 뭘 배울지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 [자료 1]

이 자료에서 교사는 수업의 순서를 단계별로 설명해 주고 학생들이 본 수업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발화가 이루어진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목표 의식과 활동에 대한 초점화가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자료 17]은 본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교사의 발

화이다.

T: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의 진행을 미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주제의 다양성, 그리고 시인의 의도에 따른 시의 종류와, 또 주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 두 개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추억에서'의 시의 주제를 찾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찾은 시의 주제를 토대로 갈래를 변용해 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

교사는 ㉠을 통해서 지금부터 이어지는 발화가 본시 학습에 대한 안내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을 통해 학습 내용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어떠한 내용을 수업하게 되는지에 관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을 통해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활동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학습자는 이러한 교사 발화를 통해 자신들이 학습해야 할 수업의 내용과 수행해야 할 활동에 관해서 명확한 상을 형성한 상태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 도식 조직자로 학습의 흐름 보여 주기

앞서 언급한 수업 단계의 체계적 설명은 말로만 하거나, 칠판에 항목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개념과 학습의 절차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도식의 형태로 학습 흐름도를 보여 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수업의 흐름을 공유하는 것은 학습자가 수업의 전반적인 절차를 알고 방향성을 유지한 채로 수업에 참여하는 효과와 더불어, 자신의 사전 지식, 전시 학습 내용과 본시 수업에서 국면마다 제공되는

새로운 지식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오스벨(1963)이 제안한 선행조직자(advance organizer)의 수업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 즉, 명료하게 설명하는 교사는 '선행조직자'를 활용하여 수업 내용을 구조화하고(Cruickshank, 1985, 이병석, 1999 재인용), 수업 명료성 평가에 '선행 조직자 제공 여부'가 평가 요소로 포함된다(Borich and Martin, 2003, 설양환 외 역, 2005 재인용). 박태호(2009: 154)에서는 선행조직자는 선수 학습 내용 복습 장치가 아닌 후속 내용 학습을 위한 사전 예고 장치로 과거 학습 내용의 단순 회상이나 재생과 구별되는 특징임을 언급하고, 본시 학습 주제 구성의 토대, 새로운 학습 개념 이해에 도움 제공, 학습 목표 관련 정보를 조직적으로 제공, 학습 목표 도달에 필요한 학습 활동 절차를 언어나 그림, 표, 맵이나 웹 등을 이용하여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즉, 학습 흐름도는 단순한 수업 설명이 아니라 학습자가 정보를 조직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인지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기여하는 선행조직자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자료 3]에서 교사는 바로 이 '학습 흐름도'라는 도식 조직자를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수업의 진행 상황을 도식화하여 제시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T :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학습 흐름도가 있죠? 방금 선생님이 제시한 게 학습 목표였죠? 그죠? 두 가지 학습 목표에 따라서 이제 뭐한다?

SS : 모둠별 활동

T : 모둠별로 활동 하구요, 그 활동에 따라서 모둠별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내용 정리해 주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형성평가를 하고 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료 3]

이렇게 학습 흐름도를 사용할 경우 학생들은 자료를 통해 수업의 진행 과정을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학습자의 인지 구조 최적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수업 표지어로 안내하기

시각적으로 제시된 수업 흐름도와 함께 '수업 표지어'의 활용은 교사와 학습자가 수업의 흐름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업 표지어'란 담화의 단락과 단락을 관절과 같이 연결해 주며, 마치 도로 이정표[8]처럼 청자로 하여금 화자와 방향 감각을 공유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수업 표지어[9]에는 '다음', '첫째로'와 같은 단어 차원의 단순한 것부터, '지금까지 ○○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와 같이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 등 다양한 유형[10]이 존재한다.

[자료 5]는 수업 표지어를 사용하여, 현재 학습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한 사례이다.

T : ㉠자, 이제 본시학습에 한 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까진 여러분들이 전시 학습 복습했고, 그리고 학습 목표를 도출해봤죠. ㉢이

8) 이러한 길 안내 기능을 부각하여 임태섭(2004)에서는 '내용 이정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9) 일반적인 담화 연구에서는 '담화 표지'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여기서는 수업의 맥락을 부각하기 위해 박태호(2009)의 논의를 따라 '수업 표지어'라고 하였다. (박태호, 2009: 30)에서는 유능한 교사는 학습 활동을 안내할 때에 활동 절차를 나타내는 '수업 표지어'와 그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식 조직자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10) 박재현(2006)에서는 이러한 표지어를 '텍스트 연결 표현'이라고 하여, 실제 담화에서의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유형화하였다.

제는 학습 목표에 맞추어서 본시 학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뭘 냈죠?

S : 1950년대의 사회 모습

[자료 5]

교사는 ㉠, ㉢과 같은 발화를 통해서 지금부터 본시 학습이 시작됨을 알리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 발화를 통해 현재의 학습 지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과 같은 교사의 발화를 듣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습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Ⅳ. 해석적 발화 사용하기

국어과 수업 대화는 학습자의 인지 수준 차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지 수준 차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교육학 분야의 연구 영역이었고, 국어과 수업 대화 수준의 구분 역시 이 분야의 연구 결과에 힘입은 바 크다.

수업 대화는 사실적 대화, 해석적 대화, 적용적 대화, 교류적 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사실적 대화에서는 학습자의 기억이나 회상이 강조된다. 해석적 대화에서는 텍스트 내의 단서와 자신의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추론을 하는 사고 행위가 강조된다. 적용적 대화에서는 텍스트를 벗어나서 자신의 배경 지식만을 기반으로 한 사고활동이 강조된다. 사실적 수준에서 해석적 수준을 거쳐 적용적 수준으로 진행되는 수업 대화의 방향은 인지적 수준 차이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Bloom(1956); Pearson & Johnson(1978); Ruddle(2000), 강병륜 · 박태호(2003)에서 재인용).

한편 Ruddle(2000)은 인지적 차원 외에도 국어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의적 차원에 해당되는 교류적 대화를 제시하고 있다. 교류적 대화에는 학습자 자신의 배경지식 외에 학습자의 가치 판단이 포함된다. 강병륜·박태호(2003)에서는 국어과 수업 대화 수준의 범주를 인지적 차원과 정의적 차원으로 구분한 후 인지적 차원에는 사실적 대화, 해석적 대화, 적용적 대화를 정의적 범주에는 교류적 대화를 포함시켜서 분석하고 있다.[11]

1) 사실적 수준: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의 회상과 기억을 요구하는 수업대화이다.
2) 해석적 수준: 텍스트에 암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독자가 추론이나 재조직을 통해서 파악하도록 요구하는 수업대화이다.
3) 적용적 수준: 학생이 자신의 배경지식과 텍스트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적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교사의 발문에 대답을 하도록 요구하는 수업대화이다.
4) 교류적 수준: 텍스트의 정보와 배경지식 외에도 가치판단을 결합시켜서 대답을 하도록 요구하는 수업대화이다.

도입부에 나타나는 발화의 수준을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능숙한 교사들의 경우 사실적 수준과 해석적 수준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수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실적 수준의 발화는 사용하지 않고, 해석적 수준의 발화만 사용한다는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사실적 수준의 발화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석적 수준의 발화까지 이어져 나가는 전개 양상을 의미한다.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센터의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박태호·이수진(2003)의 자료를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1. 사실적 발화 사용하기

사실적 수준의 발화는 학생이 관찰했거나 학습한 정보를 기억해서 반응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업 전반에 걸쳐서 학생들의 이해를 확인하거나 반응을 이끌어낼 때 사용이 된다. 도입부에서는 선행 학습 상기 단계와 수업 목표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교사의 발화 양상이다.

[자료 17]은 사실적 수준의 발화가 나타나는 교사의 발화이다.

T: 네, 나겠죠. 이 시적화자는 또 정약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정약용 시의 특징, 또 잠깐 확인 해 보고 넘어갈게요. ㉠정약용은 주로 어떤 시를 많이 지었습니까?
S: 한시.
T: 그렇죠. 한시를 많이 지었죠. ㉡또 어떤 사상을 많이?
S: 실학
T: 그렇죠. 실학사상. 그 중에서도 실사구시 사상을 많이 집어넣었죠. ㉢그 다음엔?
S: 현실.
T: 현실사회를, 그 당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많이 묘사를 했고요. 또, ㉣표현 기법은?
S: 사실. 사실주의

[자료 17]

발화를 살펴보면 교사는 학생들이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도록 하고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사실적 수준의 발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나타나는 사실적인 발화는 ㉠~㉣과 같이 학생들이 학습한 정보를 떠올리기 쉽도록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질문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료 8]에서도 [자료 17]과 유사한 양상의 발화가 나타난다.

T : 자,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도 신문 읽기, 텔레비전 보기, 인터넷 읽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문과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뭐라고 했었죠?
SS : 매체.
T : 그렇죠. 매체!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SS : 다매체.
T : 다매체 배웠어요. 자, 그러면요. 매체언어는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매체가 있었죠?
SS : 인쇄 매체.
T : 그렇죠. 인쇄 매체언어가 있었죠? 두 번째는요?
SS : 방송 매체언어.
T : 방송 매체언어가 있었죠? 자, 세 번째는요?
SS : 인터넷 매체언어.
T : 인터넷 매체언어가 있었죠. ㉣그러면 인쇄 매체언어로써 대표적인 게 뭘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쇄 매체언어를 볼 수가 있었죠?
SS : 신문기사.
T : 그렇죠. 신문기사가 있었죠? ㉤자, 방송 매체언어는요?
SS : 광고.
T :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광고가 있었죠. ㉥그러면 이 신문기사는요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봤었죠?
SS : 객관성.
T : 어, 그렇죠. ㉦신문기사는 첫 번째 어떠한 성질을 지녀야 된다?
SS : 객관성!

[자료 8]

이 자료에서 교사는 전시 학습에서 배웠던 내용을 학생들이 떠올릴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간결한 표현을 통하여 학생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사용하는 발화를 보여주고 있다.

[자료 17]과 [자료 8]을 통해 도입부에서의 사실적 발화는 학생들이 전시 학습을 떠올리기 쉽도록 간결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질문을 하되, '예/아니오'의 대답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발화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해석적 발화 사용하기

해석적 수준의 발화는 학생이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재조작·추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자료 17]은 해석적 수준의 발화를 보여주는 교사의 발화이다.

T: 아니죠. 근데 뜬금없이 전지현이 '저 지금 내려요.' 라고 이야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류시원이 따라 내렸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S: 관심 있어서. 좋아서. 첫눈에 반해서. 노리고 있어서.
T: ㉡'저 지금 내려요.'를 어떻게 해석한 건데요?
S: 같이 내려요.
T: 같이 내려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S: 데이트하고 싶어서.

[자료 17]

이 발화를 살펴보면 교사는 ㉠~㉢ 등의 발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 자료로 제시된 동영상 속 인물들의 말 속에 담긴 의도를 파악해 보도록 요구하는 해석적 수준의 발화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 제시된 [자료 8]의 수업 대화는 앞서 제시한 '사실적 발화'에 이어지고 있는 발화이다.

S: 자극성
T: 그렇죠. 왜 자극성이 있을까요?
S: 소비자에게.
T: 그렇지. 소비자에게?
S: 상품을.
T: 어, 상품을.
S: 사게 하려고.
T: 사게 만들기 위했기 때문에 어떤 성?
S: 자극성.
T: 자극성이 있다고 했죠?

[자료 8]

여기에 나타난 교사의 발화를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학습한 '신문 기사의 특성' 중에서 학생이 대답한 '자극성'이라는 속성에 담긴 특성이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사실적 발화를 통해 기억해 낸 지식이나 정보를 단순히 재인식하거나 회상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구정보(舊情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자료 9]에서도 교사가 사용하는 해석적 발화의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다.

T: 사실은 오늘 수업은 여러분 책 읽고 어떻게 보통? 책을 읽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책을 읽고.
S: 토의.

T: ㉠그냥 읽고 나서 어떻게 해? 그냥 수행 평가에 독서기록장에 어떻게 해? 줄거리 적고 몇 줄 느낌 적고 말죠? 그런데 오늘 수업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뭐 해보기일까?

S: 토의하기.

T: 토의하기. 생각은 어떻다? 내생각과 친구 생각은?

S: 다르다.

T: ㉡왜 다르죠? 이게?

S: 생각하는 게 달라서, 가치관이 달라서

T: 가치관이나 뭐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라? ㉢생각은 다른데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서로 의논할 시간은 많지?

S: 않아요.

T: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4단원 자체가 읽기와 무엇입니까?

S: 토의.

T: 토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육사 선생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끌어내는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

이 발화에서 교사는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시한 후에 그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감상을 발표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각자 생각하거나 느낀 바를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에 자연스럽게 ㉠~㉣의 발화를 통해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이나 느낌을 토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깨닫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해석적 발화를 통해 학생들이 활동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추리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알아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해석적 발화는 교사의 발화가 단순히 하나의 의도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수업의 흐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에서도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도입부에 드러난 사실적 발화의 사용 전략과 해석적 발화의 사용 전략을 살펴보았다. 도입부에서는 본격적인 학습 화동이 시작하기 전이므로, 학습자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인지적 정보 처리를 요구하는 해석적 발화를 사용하면 학습자가 흥미를 잃거나 학습 의욕을 상실하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사실적 발화와 같이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과 병행하되, 해석적 발화가 지나치게 어려운 답변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교사와 학생 간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장(場)인 교실에서의 수업 대화는 학습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이라는 목적을 가진 대화라는 점에서 일상적인 대화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 발화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업 대화의 특성에 맞는 소통 전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도입부는 학생이 수업에 흥미를 갖고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는 첫 단계이므로, 도입부에서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에 따라 수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도입부 교사 발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수업 담화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와 교사의 발화를 분석하여 도입부 발화의 특성과 소통 전략을 파악해 보았다.

분석에는 17명의 능숙한 국어 교사의 수업 담화가 사용되었으며, 동영

상과 담화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도입부 발화의 일반적인 진행 양상을 살펴보고 교사의 수업 발화에 나타난 도입부 발화의 전략을 도출하였다. 능숙한 교사의 도입부 수업 진행 양상은 '인사 주고받기, 주의 환기하기, 수업 준비 점검, 선수 학습 상기, 동기 유발, 학습 목표 제시, 본시 학습 안내'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교사나 개별 수업의 특성에 따라 한두 항목은 생략되거나 통합되기도 하였는데, 주목할 점은 이러한 양상들이 각 단계별로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능숙한 교사는 선수 학습 상기, 동기 유발, 학습 목표 제시, 본시 학습 안내 발화와 같이 도입부의 핵심적인 단계의 경우 각각의 발화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능숙한 교사의 경우에는 도입부 발화에서 수업 안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우선 본시 학습 안내 단계를 도입부 마지막에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다양한 수업 표지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습 활동의 체계적인 안내를 중시하고 있었으며, 학습 흐름도와 같은 도식 조직자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수업의 흐름과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학습을 위한 최적화된 인지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발화 수준을 분석하여 능숙한 교사들이 사실적 발화와 해석적 발화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실적 발화는 선수 학습 상기 단계와 수업 목표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발화 수준으로, 능숙한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습한 정보를 떠올리기 쉽도록 구체적이고 간명한 질문을 사용하고 있었다. 해석적 수준의 발화는 학생이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여 그것을 재조작·추리하도록 요구하는 수준의 발화로 학생들이 제시된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확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해석적 발화는 학생들이 활동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추리해 보도록 유도함

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알아내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수업 도입부의 소통 전략을 세부 단계의 연결 전략, 청자와 주제를 공유하기 위한 흐름 공유 전략, 사실적 발화와 해석적 발화의 효과적 사용 전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렇듯 구체적인 전략을 도출하고 각각의 기능을 살펴보니, 수업의 도입부는 본 수업의 앞부분에 형식적으로 붙어 있는 치장이나 없어도 되는 관례적이라는 인식으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 즉, 도입부는 말 그대로 본 수업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일부로서, 단락의 구조부터 개별 발화의 성격은 물론이고 다양한 표현 방식 차원에서, 수업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전에 계획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수 수업만을 선별하여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전략만을 도출하여 정리하였다. 그로 인해 실제 이러한 전략들이 능숙한 교사만 보유한 것인지 예비 교사나 초임 교사의 수업에도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보이는 것인지는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를 예비 교사나 능숙하지 못한 초임 교사의 수업 자료까지 확대하여, 앞서 논의한 세 전략의 차이를 밝힌다면 교사 교육의 내용을 설계하는 데 훨씬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최근 교원 평가, 수업 영상 공개, 수업 멘토링 등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수업의 질은 교사의 능력과 직결되며, 교사의 여러 능력 중 수업을 진행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그 핵심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지금까지 당위적이고 선언적인 방향 제시에 그친 수업 기법을, 실제 수업 담화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또한 교사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와 더불어 실제 담화를 분석하여 국어 수업의 여러 국면에서 그 특성에 적합한 의사소통 전략을 도출하는 연구가 지속되어 국어 수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강병륜 · 박태호(2003), 「초등 국어과 수업대화 분석 요소: 수업대화의 목적과 운영전략을 중심으로」, 『공주교대논총』 제40집, 공주교육대학교, pp.71-93.

길양숙(1999), 「중등학교 교사들이 사용하는 수업방법 및 교수행동 분석」, 『교육과정연구』 제17집, 한국교육과정학회, pp.301-331.

민병곤(2008), 「초등학교 예비 교사의 교수 화법 분석: 교대 3학년 학생의 모의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33집, 국어교육학회, pp. 367-404.

민현식(2004), 「교수 화법론」, 『화법연구』 제7집, 한국화법학회. pp.61-120.

박재현(2006), 「설득 화법 교육을 위한 텍스트 연결 표현의 의미 기능 연구」, 『텍스트언어학』 제21집, pp.239-258.

박태호(2009), 『교실 수업 전문가를 위한 초등 국어 수업 관찰과 분석』, 정인출판사.

박태호 · 이수진(2003), 「김교사의 읽기 교수화법 분석연구: 수업대화 구조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제6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p.75-97.

변영계 · 김영환 · 손 미(2007),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학지사.

이수진(2003), 「국어교육과 수업대화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3집,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pp.117-133.

이주령(2005), 「도입부 수업 대화의 분석적 연구」, 부산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

* 이 논문은 2010. 5. 10. 투고되었으며, 2010. 5. 17. 심사가 시작되어 2010. 5. 28.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0. 6. 1.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위논문.

임칠성(2006), 「국어과 도입 수업의 교육공학적 접근」, 국어교과교육연구, 제11집, 국어교과교육학회, pp.173-203.

임태섭(2004),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정석기(2008), 『좋은 수업설계와 실제』, 원미사.

Borich, G. D. and Martin, D. B.(2003), *Observation Skills for Effective Teaching* (4th ed.), Upper Saddle River, N. J. : Merrill/Prentice Hall, 설양환 외 역(2005), 『효과적인 수업 관찰』, 아카데미프레스.

Cruickshank, D.(1985), *Profile of an Effective Teacher, Educational Horizons*, 이병석 역(1999), 『교수 원리와 실제』, 원미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센터 누리집: http://classroom.re.kr

■국문초록

국어 수업 도입부의 소통 전략 연구

김승현 · 박재현

이 연구의 목적은 국어 수업 도입부의 효과적인 소통 전략을 탐색하는 것이다. 능숙한 교사의 국어 수업 도입부의 특징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수업 대화를 분석하여 소통 전략으로 설정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도출하였다.

연구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주요 공공 교육 기관과 시도교육청의 '우수 수업 영상' 자료 중 중등학교 국어 수업 영상 17편을 선정하였다. 이를 모두 전사한 후 도입부의 수업 담화를 분석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거시 구조 차원에서는 도입부의 세부 단계의 맥을 공유하여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표현 방식 차원에서는 수업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한 설명 전략을, 미시적 차원에서는 교사의 사실적 발화와 해석적 발화의 사용 전략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와 더불어 실제 수업 담화 분석의 의의와 연구의 제한점, 추후 연구의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수업 담화, 소통 전략, 수업 설계, 도입부, 동기 유발, 학습 목표, 수업 표지어

■ Abstract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the introductory parts of Korean Class

Kim, Seung-hyeon · Park, Jae-h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the introductory parts of Korean Class. In the interests of learning more about the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used by expert teachers, how the connections of each stages of class are used and which expressions are appropriate for the introductory parts were the focus of the study.

'Excellent teaching video' of the secondary school language classroom were selected. Seventeen video clips in the official education institute web site we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results revealed, connection strategies of each steps in the introductory parts, representation strategies to share the flow of teaching and learning steps, discourse strategies of analytical level of question.

Along with these finding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classroom discourse, communication strategy, class design, introductory part, motivation, learning objectives